

서울시, 조기폐차지원 139.5억 투입...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지원 확대

지난해 더 맑은 서울 2030'에 발맞춘 지원사업... '30년 서울 전역서 운행제한 목표

서울시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해 본격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 초기세면지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28% '난방 27%' 비산먼지 24% '건설기계 20%' 생물성연소 2%)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507,918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됐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순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발맞춰 금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4등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

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지난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1,503대로, 5등급 차량 운행량 13,437대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나, 그간에는 엔진교체 시에만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5억 원을 투입해 총 2,900대(▲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구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

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에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비도로용 2종에 한하여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기준가액 자체가 낮아(평균 추가지급 12만원)



일괄 1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됐다. 또한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 신청 방법 및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사업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제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피해 최소화 총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도민과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3~11월 전국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 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올해 대응 예산 118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한 지난 해 12월 1일부터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 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부부처가 총괄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해 안전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등 정부와 연계한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도 강화 중이다.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 연안 해역 10개소(해양환경공단), 근해해역 4개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4개소의 조사정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의해 이뤄지는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세슘, 요오드)를 강화한다.

장비 확충을 통해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70건(양식수산물+연근해 어획수산물)에서 20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 정보를 도청 누리집을 통해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제공한다. 수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힘

을 쏟는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및 해외시장개척예산(10.6억 원)과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가격 안정 지원(100억 원)에 나서며, 안전성 홍보 강화 등을 병행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보상과 대응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수산업 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직후, 오염수 방류까지 가장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대처반을 가동 중이다.

지난 1월 31일에는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수부 등에 공동 건의한 바도 있다.

곽건/기자

경북도, 산림에서 소득 창출하고 공기 정화는 보너스~~



경북도는 산주 소득을 증대시키고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해 3,826ha에 502억원을 투입해 경제림조성, 산불피해지 복구, 탄소저감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뿐만 아니라 특용수인 호두나무, 두릅 등 산주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주 소득을 증대시켜 바라보는 산이 아닌 돈 되는 산으로 가꾸어 임업인이 잘사는 시대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 벌꿀 생산 여건 악화와 질병 등 복잡한 원인에 의한 꿀벌 집단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공유림과 유지 등에 옷나무, 헛개나무 등을 다층형 복합 밀원숲으로 조성하는 등 1,100ha, 79억원을 투입한다.

탄소(미세먼지)저감 조림은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녹색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75ha, 39억원을 확보했다. 나무(송)는 우리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며 탄소(미세먼지) 저감, 녹색 휴식공간 제공 등 우리에게 공익적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큰나무 조림을 통해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사태·병해충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61ha, 19억원을 투입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

아울러, 포항 모감주 특화림, 영주 댐주변 특화림, 상주 밀원수 특화림 등 112ha, 23억원을 들여 지역특화림을 조성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해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

업자원으로 육성한다.

산불피해 복구 조림은 2020년~2022년 한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2,278ha, 342억원을 투입한다.

산불피해지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지역주민·산주·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구역별로 경제수, 특용수, 밀원수, 경관수 등을 식재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산불피해지를 복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양봉농가 등에게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조림정책을 추진하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Golden City 경주시
역사문화도시
미래를 꿈꾸는 경주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도전합니다!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지방 의정봉사대상 수상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4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현녀 의원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관 부서의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현녀 의원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



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항상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다음달 개교하는 천안가람초 직접 점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월 20일 3월 개교를 앞둔 천안가람초를 방문하여 개교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오 의원은 2019년부터 성성지구 초·중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성성지구(1~4지구) 도시개발로 공동주택 8220가구(2만1372명)와 공원, 학교, 도로, 상업시설 등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2019년 마무리 됐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해왔다.

현재 천안가람초가 3월 1일자로 개교 준비를 하고 있으며, 46학급(초등 43, 유치원 3)에 1,352명이 다니게 된다.

오 의원은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다.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장 성성2중학교는 2025년 3월 개교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되

고 있으며 중학교 신설까지 완성된다면, 성성지구 주민들의 교육여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근/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27년만에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서울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

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고광민 의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시대에 혼잡 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27년간 완강하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 정지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광수/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방치된 공원 '산책 공간'으로 재탄생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방치됐던 지역의 들꽃공원이 주민들의 쉼터와 산책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문성 의원은 "여수시 광림동(오림동)에 위치한 들꽃공원이 그동안 방치되어 노후된 쉼터와 수목이 우거져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았다"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 안에 주민 편의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이 매일같이 산책하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다"며 "행정은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여건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광림동 통장협의회장과 함께 들꽃공원 풀베기 및 전정 작업을 여수시에 제안하고 들꽃공원 리모델링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여수시·전남도 관계자와 개선 방안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여수시에 따르면 들꽃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 정리와 쉼터 교체, 조경수 식재 등 공사를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들꽃공원 재정비와 함께 인근의 연등천 보도교 설치공사도 올해 안에 준공하도록 도비를 확보했다"며 "새롭게 단장될 쉼터 등 편의시설이 지역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원주변 도심 쇠퇴와 고령화로 낙후된 지역에 수년간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도 하루속히 공원을 오가며 운동도 하고 정담도 나누고 싶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해명/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케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블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양군

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길, 영양군

물

영양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 영양군

빛

영양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 영양군

얼

영양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 영양군

맛

영양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맛, 영양군

쉼

영양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쉼, 영양군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의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김선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박물관, 영양국제박물관, 만이마을,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문화발전전시관, 용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사람 귀한 도심' 전입 주민 환영회 여는 중구

서울 중구가 관내 전입 주민을 위해 구 사상 처음으로 성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대상은 올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축 아파트 주민이다.

중구의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낮에는 도심 속 생활 인구로 북적북적하지만, 저녁이나 주말이면 거리가 텅 비어 늘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도시다. 이런 중구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 세운지구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1,600세대의 이웃이 들어오는 것. 지난달 말부터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인현동2가 151-1 일대)에 614세대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입정동 189-1, 2-4일대)에 1,022세대가 차례로 입주하게 된다.

현재 중구 소공동이 1,268세대, 을지로동이 1,294세대임을 감안하면 중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전입 주민의 60%가 40대 이하이니 구에서 반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구는 1,600세대 입주민이 중구에 오래 남아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입 주민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24일(금) 저녁 6시 30분 을지트윈타워 3층 푸르지오 아트홀에 전입 주민 300명을 초대하여 '중구에 온길 환영회' 행사를 진행한다. 시행사인 한호건설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도 감사와 환영의 의미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청년층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소형 평형이 많아 계약자 주요 연령대가 30~40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사전 행사로 환영식장 무대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지역 구성원이 세 이웃을 두팔 벌려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아, 관내 위치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피아노-첼로를 연주한다.

본 행사는 축하 영상 '어서와 중구는 처음이지?' 상영으로 시작된다. 지역 상인,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출연해 중구의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소개한다. 을지로에서 와인바 '을지로세시봉'을 운영하는 가수 허준석의 축하공연도 더해진다.

이어서 김길성 중구청장이 중구의 새 주민들을 향해 환영 인사를 건넨다.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나누며 중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녹지생태도시전략 등 세운지구 일대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내 집의 가치를 전망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 추진단장이 마키코를 잡는다.

본 행사의 마무리는 54뮤지컬 팀이 맡는다. 뮤지컬 갈라쇼를 무대에 올려 흥 돋우는 축하공연을 선사한다. 마지막 순서는 경품 추첨이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증정하는 우선청소기, 오븐, 에어프라이기, 냄비세트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중구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와 포토존이 마련된다.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건강마일리지,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 등 중구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안내한다.

전입 주민 환영회는 서울에서는 무척 낯선 광경이지만 이는 중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심각한 출생률 저하로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처럼 대도시 구도심도 인구 감소의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중구의 대규모 주민 전입은 도심 거주인구 증가를 모는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구 입장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청이 직접 나서 환영회를 마련한 것은 중구 '인구 증가'의 포문을 연 전입 세대가 중구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앞으로 한발 앞선 개발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정책으로 세운지구·다산로 일대 등 중구 전역에 새롭게 이사 오는 세대들이 오래 머물며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청이 직접 나서 환영회를 마련한 것은 중구 '인구 증가'의 포문을 연 전입 세대가 중구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앞으로 한발 앞선 개발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정책으로 세운지구·다산로 일대 등 중구 전역에 새롭게 이사 오는 세대들이 오래 머물며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청이 직접 나서 환영회를 마련한 것은 중구 '인구 증가'의 포문을 연 전입 세대가 중구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앞으로 한발 앞선 개발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정책으로 세운지구·다산로 일대 등 중구 전역에 새롭게 이사 오는 세대들이 오래 머물며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파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해...지역경제 핵심 만든다!

송파구가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최근 연대와 상생을 가치로 고용불안, 양극화,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이하 키움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을 배출하는 등 송파형 사회적경제기업 성공모델을 확산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는 올해 '키움프로젝트'에 구비 1억 2천 만 원을 투입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신청 기업의 발표 등 심사를 통해 6개사 내외의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3천 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전문 경영컨설팅 및 교육 ▲송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입주 공간

제공 ▲판로 지원 등 기업의 자립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연차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5년 이내 송파구 소재 또는 송파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한 청년기업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뒤,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3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수한 청년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추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환...엄마아빠의 집안일 부담 덜어 일·가정 양립 지원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실제 엄마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임신·출산 가정은 "가사노동이 힘들다.", "영유아 가정은 "육아 때문에 개인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엄마아빠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억 6천만 원을 투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3,000가구에 가구당 6회의 가사서비스(1회당 4시간, 단가 약 7만 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 있는 서비스 운영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월 22일~3월 8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3월 8일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영리법인 등)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행위로 입찰·낙찰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서비스 운영업체는 5개 권역별(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로 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한다. 희망하는 권역을 1~3지망까지 신청서에 작성해서 서비스 운영계획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

는 2,4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북권(강북구·성북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은 2,540명 지원, 서북권(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은 2,520명 지원, 서남권(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은 2,590명 지원,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은 2,930명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은 1차로 현장평가 및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복지, 여성, 행정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안전관리 등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업체는 향후 시와 협력해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선정, 가사돌보미 매칭, 가사서비스 제공, 민원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운영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시는 사업 시행 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식(공고문, 제안서 등 각 1부)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방문 및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힘든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역량 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금천구,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금천구는 2월 20일 오후 2시 금천구청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와 지역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직무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공유 및 사업홍보 △주민고용보조금 사업 운영 △다양한 일자리 연계 사업 발굴 및 기타 상호 발전에 기여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G밸리 내 중장년 구인 수요 조사를 통해 중장년 구인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금천형 맞춤형 직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주민고용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일자리 협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금천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장년층 직무특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금천구와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유대관계를 형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취업난 해소 및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월 20일 '지역 일자리창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윤옥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사진 왼쪽), 홍혜희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장(사진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치로 하나되는 관악! '제3기 관악구 협치회의 위원' 공개 모집

오는 3월 3일(금) 18시까지 제3기 관악구 협치회의 위원 모집

관악구가 오는 3월 3일(금)까지 민·관 협치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3기 관악구 협치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관악구 협치회의'는 주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집행 및 평가하는 협치 추진 체계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지역 사회 협치역량 발굴 등의 활동과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관악구민 또는 관악구 생활권자로서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자' 또는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 홈페이지(▷ 뉴스소식 ▷ 고시공고)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지역협치팀(별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적극성, 전문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3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3억 9,44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개 협치과제(▲2050 관악구 탄소중립 한걸음 더,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 공간 지원, ▲금융복지상담관센터 설치 추진단 운영, ▲별빛내린천 주민 소통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예술·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 네트워크 구축, ▲청년&마을 교류 공간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발굴과 협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혁신', '포용', '협치' 기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제3기 관악구 협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2023. 2. 17. (금) ~ 2023. 3. 3. (금)

활동내용

- 민관합치(협치)추진위원회 수립(지역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민관합치(협치)추진위원회의 운영(지역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민관합치(협치)추진위원회의 운영(지역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정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접수방법

- <접수처> * 방문/이메일 접수
- 방문: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지역협치팀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5층)
- 이메일: imimk44@go.go.kr

자격요건

- 관악구 주민 및 생활권자 중 협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정)한 자(기관·민간)

*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뉴스소식) ▷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문의: 관악구청 기획예산과 지역협치팀 (02-879-5581-4)

[수원특례시의회]복지안전위원회, 정명모위원장, 2023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명모)는 20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보고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23374동)은 “인구 밀도가 높은 수원시는 주차난이 심각해 공유주차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은 상황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 계획이 없다”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 공유주차 관련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미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2동)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승차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기사분의 승객 대응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매우 불편할 정도였다”라며 “주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승객을 무시하는 듯한 응대는 있어서 안된다”라며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곡곡?호매실동)은 “수원시에서 두 번째로 큰 산인 칠보산에 공영주차장이 없다”며 “단순히 등산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칠보산 주변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이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233동) “동탄~인덕원선의 착공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복수원 지역은 광역버스가 부족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233권선1동)은 최근 영통구 방치 차량보관소에 택시덤퍼가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택시 덤퍼 선정을 할 때

접근의 용이성, 예산의 절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잘 따져 택시 운전 종사자의 편의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최정현 의원(국민의힘, 정자12233동)은 “교차로 신호 운영에 AI기술을 접목하는 등 스마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대중교통 운영에 수원시가 앞장 서 달라”며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가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전?서둔?구운?입북동)은 “당수1.2지구에 올해 4월부터 1만2천여세대 규모의 3개 단지가 입주 시작하게 되어 교통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며 현재 계획?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으며, 이와 관련해 “당수동과 도로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 입북동과의 연계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23?망포122동)은 2021년 수원시가 출시한 ‘수원e택시’ 택시 어플을 언급하며 “대기업 택시 어플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대항마이자 민관협업 플랫폼인 ‘수원e택시’의 대인 홍보를 강화하여 택시업계와 시민 양 측 모두가 수수로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영모 위원장(국민의힘, 영화?조원122연동)은 동탄~인덕원선의 ‘장안구역’의 위치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역사의 위치는 열차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정해져야 하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위치에 역사 위치를 정한 것 아니냐”라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소관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친 뒤, 23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2023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안성시는 17일 안성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윤실 교수를 초빙하여 ‘평생교육 파이오니어들이여! 너는 넥스트 리더!’라는 주제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대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의 역량 향상을 통한 안성시 평생학습의 질 향상과 시와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진행됐다.

교육은 안성시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최윤실 교수의 특강, 새롭게 구축되는 안성시 교육통

합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며 평생교육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업무담당자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과 안성시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더욱 자주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역사문화와 이야기 있는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찾습니다”

도, 역사문화생태 콘텐츠 개발 위한 3개 스토리텔링 테마 선정,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3월 10일 까지 우리 지역 역사·문화·생태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주제로 한 융합 관광 콘텐츠(스토리텔링)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이야기를 입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 자원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문화 속 특별한 이야기거리나 기록 등을 발굴하고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재창조해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콘텐츠로 재생산한다는 취지다.

공모 내용은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얽힌 테마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실행계획으로 구성된다. 특별한 이야기거리나 기록을 주제로 체험, 미션 프로그램, 이벤트, 공연, 체험키트, 해설 투어 등 자유롭게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업방식(실행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시·군과 지역 협의체가 함께 협의해 3월 10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협의체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사실상 제한 없이 해당 시·군을 기반으로 구성됐으면 가능하며, 2개 시·군이 공동으로 함께 응모할 수도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주제의 매력도와 독창성, 관광 자원화 가능성,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 지역 참여도 등을 평가해 3개의 테마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테마 사업은 약 9천만 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지역협의체), 경기관광공사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함께 콘텐츠화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재한외국인, 청년층, 관광업계, 여행작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체험을 가미한 역사문화 해설 팸투어도 실시한다.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얽힌 설화나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설을 듣기도 하고, 체



험과 미션을 구상해 이를 직접 체험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시코 넘겼던 역사 속 이야기거리나 기록을 고

증이나 상상으로 재구성해 모두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어렵고 딱딱한 역사적 사실이 재미있는 체험관광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문화재단, 4년 연속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우수상 수상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성과 우수 기관 선정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지난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상식’에서 지역주관처 우수상을 수상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총괄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운영실적 부문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역주관처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지역주관처로 선정됐다. 이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자 시상식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우수상을 수상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운영실적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인 ‘슈퍼맨 프로젝트’와 ‘모두가 누리는 문



화놀이터, 누리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카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분야 전문단체가 협업하여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

로젝트로 공연, 문화체험, 여행, 문화상품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문화선택권을 확대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는 이동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로 기존 프로그램이 가진 공간 마련, 모객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불균형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시켰다.

경기문화재단 담당자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누리 네이버카페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임명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사회적경제국장에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인사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경기도정에 합류했다. 도는 개방형임기제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이들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도정 목표 실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에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후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경기도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에 오셨을 것이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든든하고 고맙다. 핵심 도정 관련 일을 맡은 만큼 기존 공무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갖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3급)에는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확정됐다. 추진단은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용역과 조례 제정, 배후지 개발 등을 담당한다. 한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공군항이전 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공군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으며, 2022년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기획조정실장(1급)을 지냈다.

한현수 단장은 “국방부 사업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험을 활용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성장 거점화해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포부를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2019~2021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1급)을 역임했다. 지난해 10월까지 초기 벤처투자 회사 퓨처플레이에서 본부장을 지냈다.

석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은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한 것은 다양한 사회·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언론과 기업, 공직을 거치면서 쌓은 사회혁신과 청년세대 성장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노동권익과장에는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조상기 신임 노동권익과장은 2007년~2018년 노사발전재단에서 근무한 뒤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을, 2019년~2020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21년~2022년에는 항공보안파트너스에서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조 신임 노동권익과장은 “20년 이상 노동 관련 업무만 담당해온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700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 단위의 노동정책 수립과 추진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와 수원시민, 튀르키예에 구호금·후원물품 지원

2차에 걸쳐 구호금 2억 1000만 원, 후원물품 20t 지원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에 두 차례에 걸쳐 구호금 2억 1000만 원과 후원물품 20t을 지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의장은 지난 2월 10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가 협력해 마련한 긴급구호금 10만 달러(1억 2600만 원)를 전달한 바 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10일 튀르키예가 요청한 물품(의류, 기저귀 등) 3.5t을 발송했다. 물품은 안료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장에인종합복지관, 수원구일스토어 등이 후원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성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지난 17일에는 수원시 공직자, 협업 기관 직원과 수원시새마을회·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영통발전연대·매단3동단체장협의회 등 16개 단체와 개인이 모금한 7463만 원과 소비자가



▲이재준 수원시장(왼쪽)과 김기정 수원시의회의 의장(오른쪽)이 지난 2월 10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긴급구호금을 전달하고 있다.

육중양회수원시지회·사만사·법문화 아카데미민로스쿨·한국부민회수원시지회 등 14개 기관·단체가 후원한 16.5t 상당 물품을 추가로 지원했다. 후원물품은 의류, 기저귀, 생리대, 텐트, 식료품, 난방용품, 침낭 등이다. (사)한국생활개선수원시연합회·수원시여성리더회·이만세한식부부사회

등 17개 단체(169명)는 2월 9~16일 구호 물품 분류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시는 튀르키예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6·25전쟁 중 튀르키예군은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 주둔하며 인근에 '앙카라 학원'을 세워 전쟁 고아를 돌보는 등 지원 활동을 했다. 1966년 튀르키예군 잔류 중대가 철수했고, 1974년 앙카라(튀르키예 수도) 학원은 폐쇄됐다.

수원시는 전쟁고아를 위한 복지사업을 펼친 튀르키예군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10월 서둔동 서초초등학교 인근 길에 '앙카라길(Ankaragil)'이라는 명에도로명을 부여했다. 2013년에는 서초초등학교 인근에 '앙카라학교 공원'을 조성하고, 2006년 서둔동 45-9번지에 설치했던 '앙카라 학원 기념비'를 앙카라학교 공원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살리 무랏 타메르 대사가 수원시를 방문해 이재준 시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KTX광명역에'광명시 홍보관'새롭게 문 열어

KTX광명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다양한 가치 소개

광명시는 '광명시 홍보관'을 새롭게 단장해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새롭게 문을 연 광명시홍보관은 ▲광명동굴존 ▲시정홍보존 ▲관광존 ▲미래도시존 ▲휴게존으로 구성되고 디지털과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광명시의 대표 관광지 와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하는 한편, 홍보관 입구와 내부 바닥 등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 KTX광명역 주변 시설과 조화되면서 차별화된 공간으로 재조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광명역의 이용객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방문객들이 광명시 홍보관에서 광명시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조성했다"며, "KTX광명역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홍보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동굴존은 기존 동굴조형물을 활용하여 포토존을 조성하고, 동굴조형물 내부에 촬영 영상물을 통해 광

명동굴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홍보존은 그래픽 패널을 통해 시 주요 정책과 시정현황을 소개하고 시정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그밖에 관광존에서는 광명시 관광 명소, 건축·체험, 특화거리, 광명의 산 등, 미래도시존은 광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타임라인형 그래픽으로 연출하여 40년간의 광명시 역사와 미래비전을 소개한다.

광명시 홍보관 관람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홍보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직동 KTX광명역(광명역로 21) 내 1층 서편 맞이방(3번 출구)에 위치한 광명시 홍보관은 2011년에 최초 개관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월평균 1,600여 명이 방문했다. 윤용민/기자



인천시, 2년 연속 국비 6조 목표... 미래성장파 시민행복에 집중

2024년도 첫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 핵심 사업 국비확보 전략 논의

인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6조 원대의 국비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행복 도시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다.

인천광역시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형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4년도 첫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중점 사업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시민 생활밀착형 편의사업,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안사업 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4조 5,000억 원보다 5,000억 원이 증가한 5조 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역대 최대로 달성한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정부의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27억 원),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2,500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5,041억 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1·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380억 원), 도심형 공교통 도심 실증(656억 원) 등 20개 사업으로 2024년도 국비 2,386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사업은 연차별 국비 확보를 위해 백령공항 건설(2,018억 원), 인천발 KTX 건설(4,238억 원), GTX-B(6조1,932억 원), 승기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3,884억 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434억 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 원), 서해5

도 종합발전 지원(정주여건 지원 등, 1,779억 원) 등은 철저한 집행실적 및 집행사항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 856억 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1,980억 원),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970억 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필요한 인천2호선 교양 연장(2조 830억 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사업 선정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국비 예산 신청을 받아, 부처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 심의 작업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시는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매일 국비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8기 중점 사업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매해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실·국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국비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문 사업 설명, 기재부 예산 편성 심의 대응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부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미래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사업 필요성 설명과 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통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안양시, '2023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본격 시작...25명 위촉

최대호 시장 "시민 의견 적극 반영...체감하는 인구·출산정책 추진할 것"

안양시가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도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에서 '2023 안양시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23 안양시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총 25명을 선정하고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로,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5개조로 나눠 저출산 극복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변화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문명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교육 전문강사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최대호 시장은 "인구절벽 위기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시민참여단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구·출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출생아 수가 2021년

신윤용/기자

평택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과 세부 교육사업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용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학수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의 교육자원 발굴과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교

육협력지구 도약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물적 자원의 공유 등에 협력한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평택 교육 발전을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평택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의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의 KAIST 평택캠퍼스 및 산업시설용지 등 770만㎡를 하나로 묶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를 신청하기로 밝힌 평택시는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와 KAIST 평택캠퍼스를 기반으로 브레인시티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반도체 제조와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반도체 협력생태계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하여 '21년 7월 KAIST·삼성전자와 3차 협약을 맺어 반도체 전문 연구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레인시티 내 반도체 전문 연구소를 포함하여 46만㎡에 달하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단계별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브레인시티 내 산업시설용지(380만㎡)에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소를 입주시켜 반경 2km 내에 반도체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만드는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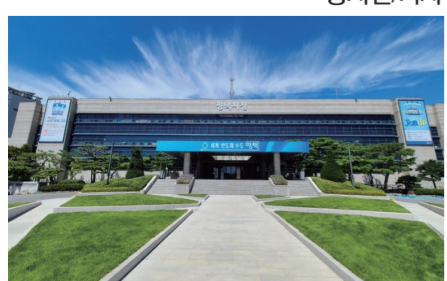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시 관계부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평택시가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해 왔다.

시가 구상 중인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가 올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로 지정 시, 반도체 생산 시설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까지 받을 수 있고, 시설투자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과감한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또한 브레인시티 내에 입주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 기업에도 범부·세무·회계 컨설팅 및 수출 촉진 판로 개척과 R&D 지원 방안이 있어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에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삼성전자)부터 고급인력 양성(카이스트 평택캠퍼스)과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브레인시티 산업단지)으로 구성된 특화단지로 지정 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 및 지역사회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하여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양시현/기자



달성군,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달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방안 보고회 및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군수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축해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시책 참여를 위해 군수 주재로 부서별 청렴도 향상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간부공무원들은 부패 예방,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지위·권한 남용,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달성군은 이번 청렴결의대회 뿐만 아니라 부패 취약 요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시 보고회와 전 직원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 국민권익위 전문강사 청렴특별교육 등 체계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청렴 달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나라사랑 아카데미 신청 열기 후끈

현장 접수 8시부터 대기, 팩스·인터넷 접수도 20분 만에 마감



예천군 예천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성인 교육프로그램 '제4기 나라사랑 아카데미' 신청이 조기 마감돼 인기를 실감했다.

나라사랑 아카데미는 예천 출신 충신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한 애향심 형성, 올바른 나라사랑 정신 확립과 문화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전문가 강의와 올림도·독도답사 등 2회 현장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이 28일까지였으나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군민들이 대기 물리면서 현장 접수는 오전 8시부터 대기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팩스·인터넷 접수 신청도 많아 30명 모집 과정에 50여명이 지원해 20분 만에 마감됐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예천의 충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가관 형성으로 주권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2023년 복지업무 공유·소통·협력방안 논의

도·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 개최, 복지정책 방향과 현안 설명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2023년 경북도 복지분야 주요업무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도·시군 복지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경북도 사회복지·노인·장애인 분야 주요시책 및 현안을 설명하고 시군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금년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가구에 대해 신속히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와 생활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해 의사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군 협조를 당부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테이블, 의자 및 안전바를 설치하고 밀반찬 지원과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을 통해 안락하고 보람된 여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1회 2~7일, 연 최대 30일까지 24시간 돌봄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8개 시군(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칠곡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예천군 황숙자 사회복지과장은 경북도의 광역행정 추진 시 현장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공감



하고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분야 예산은 4조 6천여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그 규모 또한 더 증가할 것”이라며, “시군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복지사각 지대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직원역량강화 교육'아는 만큼 잘 한다!

영주직업자병원원은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2월 16일 본원 양리 뒀남홀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래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당뇨병환자들이 인슐린 사용 목적을 이해하고 올바른 주사법을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혈당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아는 만큼 잘 한다!”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외래 간호사, 간호조무사 23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주사제와 사용법 및 주사제 주입 실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고○영 간호사는 “교육이 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며 모호했던

것을 정확히 알려주어 너무 유익했다. 또 모형을 통해 직접 주사 실습까지 해 볼 수 있어서 환자분들께 정확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김철호 영주직업자병원장은 “이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서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직업자병원원은 2021년 4월부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영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생산유통통합조직 실무협의회 개최

의성군은 생산유통통합조직 실무협의회를 16일 의성군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공법인 대표, 8개 농협 출자출하조직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금년도 변화하는 정부 농산물 유통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도 정부의 산지유통정책은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 개편됐으며, 군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관계 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군은 조공법인 출범 원년인

2021년 원예농산물 244억원을 취급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출범 2년차인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49억원을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공동사업법인 종합경영평가 전국 2위를 수상하는 등 전문 유통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시시각각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농산물 유통정책의 핵심 방향은 안정적 판로 확보와 수취가격 제고”라며 “앞으로도 전문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울릉군수, 경상북도지사 면담 및 지역 현안건의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7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민선8기 주요 현안 사업 건의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울릉군의 절실한 마음을 전달했다.

남 군수는 울릉항 3단계(크루즈항) 건설과 일주도로3 건설 사업과 같은 지역 역점 시책 추진을 건의했으며,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출산을 저하, 주택 보급률 전국 최하위, 의료서비스 취약 등 정주여건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협조를 간곡히 건의했다.

이런 울릉군의 건의에 이철우 도지사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법령 제정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울릉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오는 24일 예천군에서 개최되는 민선8기 제3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협



조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군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울

릉군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지역발전

을 위해 울릉군 세일즈맨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중조감제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간부 회의에서 “미래 상황에 한발앞선 대응”지시

정당한 유족의 정당한 요구는 언제든지 수용

홍준표 대구시장은 2. 20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하철 참사는 대구시민 모두의 아픈 기억이다. 그러나 지나간 상처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정당한 유족의 정당한 요구는 언제든지 수용할 뜻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부 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은 2.18참사 20주기 행사에 대한 시민 안전실 보고를 듣고, ‘2.18 안전문화재단’이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부상자 의료비 지원 5년 추가 연장, 성금의 관리 실태 조사 및 시민안전 인식 고취 등 지역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지원을 하되, 사회 참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지원의 원스톱 투자유치 공조

체계 구축에 대한 보고에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협약 체결 후의 집행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수정 알파시티 내 롯데몰 같은 사업 지연을 방지해서는 안 되고, 정책적 수단이 수반돼야 기업이 움직인다면, 3월 첫째 주까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 해당 실·국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지정과 및 부지 환수 절차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청년여성교육국에는 3월부터 신청을 받는, 저소득 자녀의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국에는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및 전철 등의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



화 지원시책을 발굴해 공공요금을 안정시킬 것을 지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실·국별 업무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하되, 현장 대

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앞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



청송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1차로 1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18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 행정기관 제외)이며, 지원금은 환경부에 고시한 차량에 한해서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80만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1800만원, 전기 승합차의 경우 8400만원까지 지원 받

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를 통해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2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 가능한 순서로 선정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탄소중립 실천이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청송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은 대기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STEAM, 과학, 수학, 정보(SW, AI)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외 연수 실시

상상을 현실로, 경북

미래교육의 길을 열다

경북교육청은 STEAM, 과학, 수학, 정보교육 TF팀 교사 22명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을 6박 8일 일정으로 2월 15일부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STEAM, 과학, 수학, 정보(SW, AI)교육 활성화 및 이공계 분야 선진지역 탐방을 통해 경북도 내 센터(관)의 선진 운영 시스템 도입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해 기획됐다.

첫 일정은 경북과학고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에 있는 최수형 학생과 함께 스탠퍼드대학을 탐방하며 이공계 분야 활성화를 위해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NeuroSky 공동 창업주이며, Brain Disorder, 인공지능(AI), 감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구형 박사의 ‘Education for Dream & Invention(AI시대를 위한 교육)’이라



는 주제 특강을 통해 AI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 협업,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이는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삶의 힘을 기르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경북교육청의 슬로건과 비전에 협업과 도전정신을 담고 있고, 2023년 경북교육의 중점과제로 ‘인성교육’을 채택한 경북교육청의 미래인재양성 방향에 대해 힘을 실어 주었다.

2월 16일 오전은 MUSD(MILPITAS UNIFIED SCHOOL DISTRICT, 밀피타스 통합 교육구)를 방문해 교

육 공간 혁신 사례 및 협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AP(Advanced Placement, 대학과목 선수 이수제) 교육과정 수업 참관 및 운영 사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구미산동고 황은아 선생님은 “11~12학년 AP과정 운영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으로 돌아가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MUSD 소속 학생, 교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MUSD(MILPITAS UNIFIED

SCHOOL DISTRICT)의 교육감 Cheryl Jordan, 교육위원 Chris Norwood, 교육위원 Anu Nakka과 만남을 통해 경북교육청과 MUSD이 STEAM, 과학, 수학, 정보교육 분야에 대한 상생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오후에는 공간 혁신을 대표하는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뉴욕에 거주하는 Sam Canning Kaplan(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Specialist)과 구글 미트로 연결해 수업 및 학교 행정에서 생산 및 협업 활동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Workspace 활용 사례 워크숍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이 낳은 훌륭한 인재가 세계 인류대학에서 재학생인 것이 자랑스럽고, 이구형박사의 특강을 통해 미래 인재의 덕목이 경북교육의 방향이 일맥상통하는 것에 대해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며 “남은 일정 동안 많이 느끼고,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동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체 모집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대구 동구청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체를 모집한다.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기업으로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등이 있다.

기업으로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은 현장 방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대구상공회의소(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특허 출원비용,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소규모 IP과제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 내 제조 및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혁신·벤처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인증평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혁신형·벤처기업 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비롯해 관내 우수

한 중소기업이 국내 박람회를 참가할 경우 참가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등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유선 문의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판로를 개척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는 관내 기업들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주요사업 점검... 도심 역사문화유산 복원 정비 등

주낙영 시장 “시민 중심 소통행정 통해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역점 사업에 임해 달라” 주문

주낙영 경주시장은 20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역사문화유산 복원정비 종합계획,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023년 시민 간담회 등 경주시가 올해 추진할 중점사업을 점검했다.

먼저 주 시장은 ‘도심 역사문화유산 복원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해 말씀을 했다. 도심 속 산재한 고려·조선시대 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한 종합복원정비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은 동경관(객사), KT&G부지(동헌 터), 경주문화원(경주부 관아), 집경전지(태조 어진 봉안), 화랑수련관(옛 야마구치병원), 경주경찰서 관사 등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도심 역사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동경관, 경주부 관아 건물터, 집경전지(문화재과), KT&G 건물, 경주경찰서 관사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과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온 도심문화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역사문화유산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경주시의 역사

와 문화유산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사업은 연구단지와 동경주IC 연계도로망의 병목구간을 해소해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사업 대상지는 감포읍 대본, 나정리(나정삼거리~원자력연구단지)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다. 도로개설 길이는 1.93km로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37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사업비로 설계비 12억원이 우선 배정됐다.

앞서 2021년 6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승인이 고시됐고, 2022년 1월에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건의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면서 지난해 8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지구로 확정된 바 있다.

경주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국도31호선)를 마치는 데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 민생현장 점검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간담회’와 관련해서도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이나 복지회관 등에서 개최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도 시민이 원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중심이 되도록 시민 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역점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봉화군,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봉화’ 실현 다짐!

군수, 의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공직자 청렴 결의

다져

봉화군이 청렴 문화 확산과 일상 속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특강을 열었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특별 초빙해 일일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봉화군청 직원 외에도 봉화군의회 의원과 직원들도 참여해 민선 8기 군정과 제9대 봉화군의회 청렴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문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금지 및 부패행위 방지 △부당한 지시 및 앞선 청탁 근절 △공정하고 친절한 고객만족 행정 실천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전 직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해 조직 내 청렴의 일상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과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봉화’ 실현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결의대회 이후 바로 진행된 청렴교육에서는 봉화군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대응 방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본소양 및 관련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업무별 부패 발생 원인과 대책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쉽게 강의해 참석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강의를 맡은 박연정 연정에듀테인먼트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서 인·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등 부패 발생 위험성이 큰 업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실무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연국 봉화군수는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에 대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면서 “민선 8기 군정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 릴레이 청렴캠페인, 청내 청렴방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일상 속,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금/기자

통영시 통합관제센터, 소중한 생명 지켜

취업 비관 자살기도자 구한 통영시 통합관제센터



통영시 통합관제센터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기도자를 발견,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통영시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19시48분경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도천동 충무로 난간에서 머뭇거리다 올라가는 한 여성의 모습을 포착했고, 신속하게 인근 경찰에 알려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구조 확인 결과, 취업난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통합관제센터가 자살사고를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학업 성적을

비관한 학생이 통영대교 난간을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는 등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7명이 넘는 자살 기도자들에게 구조의 도움을 전한 바 있다.

구태헌 시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CCTV 2,425대)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용준/기자

경남도, 남해안권을 세계 으뜸의 해양관광라인으로 구축

20일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해수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 개최

경남도는 20일 오전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해수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남해안권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고자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별로 관광자원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부산, 전남, 경남이 합동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추진단’을 통해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남해안을 세계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부산과 전남을 잇는 허브로서 해상교통, 인프라 등 핵심기



능 강화와 해양콘텐츠 개발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과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신속하고 독보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대표적인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대한민국 발전동력은 제조업만으로는 안되며,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하고, 가장 핵심은 관광산업이다. 특히, 남해안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수도권과 차별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려해상 국립공원, 다도해 국립공원 등으로 남해안을 보존

과 규제의 시선으로만 보고 방치해왔다. 말 그대로 공원이라면 국민 생활의 일부로 들어야 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되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한다”면서 “남해안 관광명소들을 성장동력화하고 해양관광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데에 오늘 정책협의회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부한 해양레저 관광자원을 가진 남해안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3개 시도가 가진 잠재력을 하나로 묶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관광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경남, 부산, 전남 3개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말,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부산, 전남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어젠다 제시, 해양항공 등 관광인프라 확충,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자체 간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재현/기자

사천시,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 출범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 및 자문 역할

사천에서 우주항공산업의 격변기에 선제 대응해 우주항공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한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사천시는 20일 시장실에서 사천시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항공 관련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산·학·연·관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상국립대 교수,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참여한다. 사천시 항공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윤형근 사천시 의회 의장과 황재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실무추진위를 이끌 예정이다. 간사는 우주항공과장, 서기는 우주항공청설치 TF팀장이 맡는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우주항공청의 출범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과 함

께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 관련 현안 논의, 업무 협력, 신사업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실무추진위원회는 전방위적인 우주항공 역량결집을 통한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5년 2월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기간연장이 없을 시 자동 해산된다.

한편, 사천시는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라 위성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성제조혁신센터는 우주 관련 기업들에게 연구·제조·사업화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시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가 사천의 우주항공 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심점이 되어주길 바라며, 향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부산시, 완벽한 도시환경정비로 2030엑스포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로드체킹 전담팀(TF)… 단장(행정부시장), 총괄반(보행도시정책과), 실무반(관련부서 및 관할구) 구성

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지실사(4.2.~4.7.) 대비 부산의 세련되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 조성 과 환경 분위기 고취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드체킹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도시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체킹 전담팀(TF)’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 대비해 도시품격을 저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선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담팀(TF) 단장은 행정부시장이며, 총괄반은 보행도시정책과, 실무반은 관련 부서 및 구·군으로 구성됐다. 총괄반은 도시환경분야를 총괄하여 입체적·포괄적 점검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담팀(TF) 단장, 총괄반, 실무반 및 관할지역 부단체장이 실사단 이동 동선을 따라 세밀하게 로드체킹하고 정

비를 하게 된다.

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실사단이 들어가는 날인 4월 7일까지 사전점검, 로드체킹, 정비보안, 최종 합동점검 등 4단계로 나누어 도시환경정비를 면밀하게 추진한다.

우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훼손 공공표지판,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철거하고, ▲상승 불법주정차 구역은 기동순찰반 순회 및 무인단속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도심 청결을 위해 ▲실사단 주요 이동 동선 및 방문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진공 흡입 물청소를 실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이미지 및 환경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초화식재, 환영 꽃담, 교통성화단 조성 및 가로변·교차로·중앙분리대 등 수목에 대하여 전정과 고사목을 정비할 계획

이다. 그 외 ▲구·군 ‘도시환경정비의 날’을 집중 조정·운영하고, 부산시 ‘클린 부산 기동365’ 환경순찰 강화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산의 길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사항을 제보받아 피드백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2030엑스포 홍보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은 도시경쟁력과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첫 단추”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도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교원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경상북도 교육청연구원에서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교사들의 진학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400여 명의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연수는 △2024 대입의 이해와 진학지도의 방향 △2024 대입 주요 대학 전형 분석 △저경력 고3 담임 대상 진학지도에 대해 안정환 선생님(대교협 파견교사)과 경북진학지원단 기대연 선생님, 최종열 선생님, 이재준 선생님이 각

각 강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경북진학지원센터의 교사 대상 연수에 참여할 때마다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아 진학지도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고3 담임교사,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하거나 처음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선생님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

경남 창원권, 전국 중소도시권 중 개발제한구역 남은 유일한 권역 해제 절실

경남도는 20일 오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도지사의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가 이뤄졌다.

국도교통부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함께 만들어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 초래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3,775.9km²)중 부울경(979.9



km²)은 수도권(1,365.3km²) 다음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296.9km²)으로 남아 있어 타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 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종진/기자

포스트코로나 관광수요 전복으로 끌어들이자!

전북도, 시·군·관광재단·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업 나서

전북도는 포스트코로나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내 시·군, 관광재단 등과 협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 관광단체·기업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20일 전주 로니호텔에서 도내 관광 분야를 책임지는 도,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19개 기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협조 및 홍보사항,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발전방안 토의,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전북소프트트래블라운지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 참석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담당분야 중점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의 '23년도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기관별 '23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비롯해 협조사항 등을 주고 받으며 관광트렌드 변화 등에 걸맞은 전북관광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토의를 펼쳤다.

도는 이 자리에서 도정 목표인 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023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위케이션 활성화, 시군 지역축제 역량강화, 치유관광산업 육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후속사업 발굴,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마이스산업 육성환경 조성 등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023년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과 고창은 인접 시·군과의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도내 방문 관광객이 연계 방문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는 14개 시·군의 관광안내와 정보 제공, 무료 집보관, 굿즈 매장, 쉽터 운영 등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북 소프 트래블 라운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트래블라운지 활용 시군의 관광정보 안내와 관광기념품 판매 협조를 요청했다.

이남출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경제 어려워…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 달성해야”

완주군이 '제로 코로나 시대'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일 오전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고위 간부진과 읍·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2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실·과·소는 2024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상황과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부서별 핵심사업 이행 계획,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군수는 이날 "경제가 너무 어렵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축산 농가들의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신속집행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 올 상반기 중 신속집행 목표치는 예산 대상액의 60%인 총 2,627억 원이며, 이 중에서 올 3월까지 1분기 소비와 투자 부문의 조기집행 목표액은 495억 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강한 주문이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지금 인구 10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전환기적인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며 "여러 업무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구 10만 명 시대를 전제로 해서 구체화

해야 할 것이며, 군(郡)이지만 시(市) 지역에 버금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유 군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말로 '공직자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유 군수는 이날 "민선 8기 제1 핵심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관리, 전 부서 간 유기적 공조체계 가동 등이 필요하다"며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과 연계발굴을 통해 재원확보에 나서고 국장과 부서장 중심의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유 군수는 또 "주민들의 요청이나 민원이 13개 읍·면에 직접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이 지역발전의 책임감과 군민행복을 위한 소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적극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향에 맞춰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특례는 무엇이 있는지 발굴해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수기자

진안군, 필리핀 2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위한 MOU체결

진안군이 올해도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각각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퀴리노주 등 2개 지자체와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일손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진안군은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필리핀 현지에서는 우수 인력을 선발해 사전적으 훈련을 실시해 농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적기 인력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했으며 올해 초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 사전 조사와 더불어 필리핀 마갈레스 시장, 관계자와 면담을 거치고, E-mail을 통해 세부협약 내용을 사전 조율하는 등 협의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필리핀 현지인들에 대해 이탈방지, 근로기준법, 진안군 농업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을 실시하고, 3월 초 현지 면접을 통해 계절근로자 150여명을 선발해 3월 말~5월 초까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진안군은 파종기, 수확기에 집중된 인력난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농비용이 증가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특정시기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초래되는 등 농업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155명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한 395명을 배정받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거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을 포함해 총 445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다. 군은 이번 협약식 체결을 통해 도입하는 150여명의 계절근로자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형식으로 계절근로자 200여명에 대해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순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인력난 해소에 승통을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금번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 탈방지 및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문화적 교류 등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신산업 선점할 전략 마련할 것”

정부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육성 발표, 익산발전 기회

익산시가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신산업 분야에 대응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으로 산업 선점에 나선다.

정현을 시장은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육성방안을 토대로 대응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익산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관련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고 전했다.

이어 "익산이 해당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전략을 자세히 분석하고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시는 함열을 일원에 국비 23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1단계로 벤처·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R&D 사업화 지원 등

이 진행되며 2단계로 실질적 창업이 이뤄질 수 있는 창업보육지원시설과 시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혁신파크가 건립된다.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포함한 12개 기업지원시설들이 입주해 식품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분양률 78.8%를 보이며 2단계 사업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대비해 익산만의

특색있는 특례나 타 지자체와 연계한 권역별 특례를 발굴할 것을,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지진으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익산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며 "공공시설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행동 요령 등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하라"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전주시, '완산구 주민과의 첫 만남'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도시 만들 것"

우범기 전주시장, 20일 완산구 첫 동 순방으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평화1동 주민과 만나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의견을 듣는 동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0일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의 완산구 첫 일정으로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을 찾아 평화1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우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평화1동 주민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도·시의원과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우 시장은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강한경제 전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민선8기 비전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와 시정은 영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우 시장은 평화1동 주민 등 모든 전주 시민이 일상 속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평화1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행정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평화 지하보도의 우범 지역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노후화된 인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승배기로 인도 정비, 평화로 가로수 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이날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력의 꿈을 꾸고,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제안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전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거주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생생마을 만들기 설명회 개최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농촌, 행복한 마을 조성

남원시가 올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시작에 앞서 6개 선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농업인 상생플랫폼에서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개최한 설명회에는 마을주민과 면 담당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 안내와 마을별 사업 발표, 보조사업 추진 절차 및 서류 안내가 진행됐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단체인 소규모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활성화단계인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사후관리 단계인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

된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및 도농교류상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공동체 활동지원사업 4개마을, 3천만원, ▲마을평생교육 지원 1개마을, 1천만원,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1개마을, 1천5백만원이 선정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활력 넘치는 농촌,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해 향후 대상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부안군, 청년 정착 지원 청년멘토 모집

부안군이 청년 멘토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부안 청년멘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멘토가 지역 청년들의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 내 청년멘토(청년지기) 지원을 통한 청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청년정책 참여 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부안 청년멘토 지원 사업' 참여자를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부안군 모집인원은 2명으로,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부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청년정책 및 청년사업 추진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청년을 포함한 성인이다. 주요역할은 청년 멘토, 청년정책 컨설팅 등 청년정책 길라잡이로 청년들의 지역탐색, 청년관련 사업 절차나 추진 과정 애로사항 상담, 청년정책 협의체와 소통, 협업을 통한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청년지기 활동비는 월25만원씩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선발 방법은 서류 적격 여부 심사 후 면접 심사로 이루어지며 부안군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허용권 미래전략담당관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독자 학습으로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인 경험과 과정에 대한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며 "멘토와의 멘토링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영암군, 영암군민속씨름단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수용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31일 제출받은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씨름단 운영 방향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군민의 의견은 공론화 과정 중 2번의 설문조사에서 '씨름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약 48%로 나타난 것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곧 해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이에 영암군은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씨름단 운영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씨름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씨름단 운영방향은 영암군민속씨름

단의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암군 홍보, 최고의 씨름단 육성과 선수 보호, 지역과 함께하는 씨름단 운영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가장 인기있는 씨름단으로서 K-씨름의 긍정적인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씨름단 인기의 부활에 앞장서고 영암군은 우리민족 대표 전통 스포츠의 부흥을 선도하는 리더 지자체의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군민이 인정한 씨름단으로서 재출발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성적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씨름단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해수부-전남·부산·경남, 남해안해양레저관광벨트 맞손

20일 경남 통영서
협약...김영록 지사,
'남해안 종합개발청' 제안



해수수산부와 전라남도, 부산시, 경상남도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오전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열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2022년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한다. 또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시도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조성추진단 구성.운영 ▲기반시설 연계.확충, 글로벌 브랜드 및 관광자원.상품 개발 ▲해양레저관광 관련 제도 정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국제행사 개최 및 공동 홍보 등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

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 조성 방향을, 3개 시·도는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남해안은 더 이상 한반도의 끝자락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자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현대형양시대 '신해양.관광.친환경 수도'로 우뚝 설 것"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이 원팀이 돼 남

해안을 세계 속에 빛나는 해양관광.휴양 중심 거점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권 개발이 종합적.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추진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 6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제안했다. 참여 부처는 해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행정안전부다.

정해명/기자

영광군, '2023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자 모집

영광군은 2023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작물 재배기술 습득을 중점으로 한 '귀농형'과 농촌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는 '귀촌형' 그리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형'이 있다.

영광군은 '프로젝트형'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씩 2기수가 운영되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40세 이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농촌에서 살아가기 프로젝트형'의 강점은 영광군 청년 주민 사업체 창업 우수사례 현장 탐방, 사회적경제기업 선진사례 체험, 귀농귀촌 답사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귀농귀촌 시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제공한다는 점이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로 확정된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에서 살아가기'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순/기자



'답례품 한 곳에' ... 나주천연염색재단,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전시회 개최

나주배, 멜론, 쌀, 잡곡, 천연염색제품 선배

나주시천연염색재단은 내달 3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30%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나주시 답례품(공급처)은 배(나주배APC), 멜론(세지농협), 잡곡(공산농협), 쌀(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천연염색제품(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과 나주목사내아 숙박권, 나주사랑상품권, 나주물 마일리지 등 총 8종이다.

박물관에서는 배, 멜론, 잡곡, 쌀, 천연염색제품 등 지역 특산물 5종을 방문객에게 선보인다.

특히 전시회 기간 전국에서 활동하는 천연염색지도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 총

회 및 워크숍 등 여러 행사가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되어 나주시 답례품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에서 내놓은 '천연염색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전통 염색 기법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나주를 상징하는 꽃인 배꽃(梨花) 장우산, 스카프, 테이블 매트, 컵홀더 및 코스타, 넥타이, 수저집, 쿠션, 앞치마, 산수화 가리개 발 등 실생활에 유용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천연염색 고유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염색력 박물관장은 "나주 답례품은 하나같이 담과 정성이 가득 담긴 고품질 농·특산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효과가 더해질 기대한다"며 "박물관 방문을 통해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천연염색제품을 폭넓게 감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장흥군, 2023년 맞춤형 농업인 교육 '활발'

장흥군은 2023년 지역 농업인 선도할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 및 지역특화 맞춤형 품목기술 교육을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읍면회의실 등에서 총 16회에 걸쳐 7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장흥군은 이어 농촌진흥청 국비를 확보해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전문교육인 농업인대학, 농업CEO양성을 위한 농업아카데미 등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주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기초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도 을 운영한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성장 잠재력 약화를 극복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및 여성농업

인 전문교육, 선진농가 현장 견학, 경영진단 컨설팅,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군영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농업인 교육을 활성화해 농산물 생산 기술력 향상과 군민 소득향상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해남군, 달마고도 힐링축제 3월 25일 개최

해남군은 오는 3월 25일, 해남 미항사 및 달마고도 일원에서 2023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한다.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아름다운 절 미항사가 있는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 달마고도 일원에서 열리는 걷기 축제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다.

'우리의 첫 봄, 달마고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달마고도를 걸으며 봄을 만끽해보는 걸기행사와 더불어 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숲속 버스킹과 제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공연의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

또한 노르딕워킹·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통해 그동안 지친 국민들의 일상을 위로할 수 있도록 쉽고 즐거운 함께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장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땅끝 해남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달마고도는 미항사를 출발해 산 허리를 감아도는 17.74km의 둘레길이다.

달마고도는 수려한 달마산의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다도해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둘레길로, 중앙비를 일체 쓰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조성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옛길 그대로 조성했다. 2017년 11월 개통 이후 20여만명이 다녀가며 여행객들이 꼽는 최고의 명품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광남/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군공항특별법안 반드시 국방위 통과돼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일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안이 21~22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월27일 지자체-국회-정부 3자가 모여 광주군공항이전을 위한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자구

수정까지 마친 상태로 사실상 통과돼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TK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서도 "TK특별법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견 접근이 더 필요하지만 광주군공항특별법안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월에 먼저 통과시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결국 국회 법사

위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같은 날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오랜 시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해소해줄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함평·영광 등지에서 유치 움직임이 있고 아직 밝힐 수 없지만 필요하지만 광주군공항특별법안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월에 먼저 통과시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결국 국회 법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돼 군공항 이전이 민주당의 확실한 당론임을 보여 달라"며 "더 나아가 부산 가덕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광주군공항이 제1당인 민주당에 의해 잘 추진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병수/기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d-camp와기업 지역진출 맞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월 20일 14시,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가 주최하는 'd-camp 지역협력기관 지원사업 설명회(프로그램명 : 2023년, 스타트업을 위한 로컬진출 가이드 with. d-camp 지역협력기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캠프의 지역 협력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소개하여,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캠프 등 다수 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했다.

이 날 진행되는 사업설명회는 디캠프, 강원·경남·광주·대구·제주·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DGB 금융지주,

한국공항공사, 기술보증기금에서 참여하여 스타트업의 지역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병행하여 진행되는 1:1 상담을 통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역 지원 사업 안내가 이루어진다.

강원혁신센터는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관광, 로컬크리에이터, 온라인커머스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진출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디캠프와 리모트워크 프로그램 등 협력을 이어나가며,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동원/기자



천안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차 살균 소독하세요!

천안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3개소에서 '유아차 살균소독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날로 늘어나는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한 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위생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4개에서 19개 소독기를 새롭게 설치했다.

설치된 소독기는 외부노출이 잦고 세균에 오염되기 쉽지만, 가정에서 직접 세탁이 어려운 유아차, 보행기, 카시트 등 유아용품용 비누제거, 보행 보조기 등 의료물품과 생활용품까지도 소독 가능하다.

소독은 자외선을 이용한 친환경 방식을 이용해 2분 이내에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99.9%까지 살균하고,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유발 원인인 집먼지진드기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음성안내를 통해 간단히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소독기 안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소독 중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정지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유아차 살균소독기' 설치장소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우리아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아차 살균소독기 무료 이용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소독가능 품종: 유아차, 카시트, 대안장난감, 보행기, 보행기 등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041)521-5373

청주시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

청주시 보건소는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이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먹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가능하다.

접종 희망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지)소 또는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돼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동안 로타 예방접종은 선택접종 항목으로 20만 ~ 3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비용 부담 때문에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부모들도 많았다.

이번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계기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화/기자

양양군, 다목적체육관·볼링장 건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구 저변 확대

양양군이 다목적체육관과 볼링장을 건립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양양생활체육센터의 2층을 볼링장으로 증축하고, 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

먼저, 양양 다목적 체육관은 양양읍 구교리 184-2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149㎡ 규모로 건립하여, 주민들이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비는 60억원(국 10, 도 6, 군 44)으로, 지난 2월 착공했고 올해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양양 볼링장은 양양읍 구교리 185번지 일원인 기존 양양생활체육센터(탁구장)의 2층에 연면적 1,274㎡ 규모로 증축된다. 볼링장에는 14개의 레인과 함께 휴게공간, 락커룸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볼링장 건립 사업비는 54억원(국 10, 도 7, 군 37)이며, 오는 3월 중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볼링장이 건립 되면, 볼링을 하러 인근 시군을 다녀오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가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궁도장까지 생활체육 시설들을 집적화하여,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종합대회 유치에 탄력을 받고, 전지 훈련지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종합운동장을 거점으로 한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집적화하는 한편, 원거리 거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각종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양양이 생활스포츠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영동군, 동절기 정지 공사·용역 재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활력'

영동군은 기존 하락으로 인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동절기 중단했던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 명령 해제 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간 일시 정지됐던 공사 92건 용역 32건의 총 124건 43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용역이 이날 20일자로 일제히 재개된다.

앞서 군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기존 하강으로 인한 각종 시설공사(용역)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달여간 각종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를 조치했다.

군은 일시정지 기간 동안 노반 침하와 붕괴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시설 점검을 했으며, 도로 성토와 다짐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사업은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건축공사, 도마령~힐링타운 숲길조성사업, 민주시민자연휴양림 환경개선 개보수사업 등을 비롯해, 지역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소화천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모두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사업들이다.

군은 이들 동절기 일시 중지됐던 건설공사들이 일제히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기 불황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간 숨을 골랐던 여러 공사와 용역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조기 발주는 물론, 건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김원호/기자

청양군, 상수도 사업 관리용역 통합으로 53억 절감

청양군이 4개 대규모 상수도 사업에 대한 관리용역을 통합함으로써 예산 52억 원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역을 각각 발주하는 경우 총 98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합해 소요 예산을 47% 수준인 46억 원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군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용역과 관련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착안한 결과다.

군은 오는 3월 통합 용역을 시작해 완료 시까지 공정관리, 부실 공사 예방, 공사 품질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통합 대상은 ▲장평지구 농어촌개발사업(289억 원, 2021~2025년) ▲청남지구 농어촌개발사업(158억 원, 2024년 이후) ▲청양읍~은곡면 비상공급망 구축사업(80억 원, 2021~2025년) ▲청양읍~대치면 비상공급망 구축사업(87억 원, 2021~2025년)이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군민 대다수가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면서 식수 품질 악화와 수량 부족에 시달림에 따라 광역상수도 연결을 해결방안으로 선정하고 4개 사업에 집중해 왔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정산면, 남양면, 대치면 일원에 총 573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했으며,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 관광 구축 등 넓은 상수도 개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4개 사업으로 2,400

세대(4,460명)에 대한 식수·생활용수 공급이 한층 원활해지고 광역상수도 보급을 통한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효율화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황규철 옥천군수, 민선8기 첫 '읍면 순방' 성료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13일 동안, 이원면을 시작으로 20일 옥천읍까지 하루 2개 읍·면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민선8기 첫 읍면 순방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순방은 읍면 기관단체 방문, 읍면 직원 간담회, 2023년 군정업무보고,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황규철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기존에 건의된 숙원사업의 추진현황 설명은 물론, 현장에서 여러 계층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 자리를 통해 180여 건의 및 제안 사항이 접수됐다. 마을도로 및 세천 정비, 주차 공간 확보, 버스노선 조정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주류를

이뤘다.

이외에도 △동이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 방안 △묘목산업특구 홍보 △귀농·귀촌인 지원 방안 △장계관광지 활성화 △둔주봉 편익시설 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로 확대 △규제지역 개선 건의 등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황규철 군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순방을 통해 옥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부서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행복드림 옥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제24회 음성품바축제, 5월 17~21일 개최

음성군은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음성품바축제를 오는 5월 17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축제추진위원회를 지난 16일 개최해 음성품바축제, 음성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 등 군의 대표 축제 개최 기간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023년 6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24회 음성품바축제는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개최된다.

음성군 농산물 축제인 2023 음성명작페스티벌은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금양 금빛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4년 만에 개최되는 제42회 설성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음성품바축제를 올해는 예전처럼 5월에 개최하고 10월에 열렸던 음성명작페스티벌도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추석명절 전으로 개최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큰 일교차로 인한 축제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기명 축제추진위원장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

한 축제를 선 보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음성군 대표 축제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모두 개최되는 만큼 많은 관람객이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3회 음성품바축제에는 21만여명이 방문해 168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으며, 8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돼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통합 농산물 축제로 처음 개최한 2022 음성명작페스티벌은 12만여명이 다녀가 8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최만식/기자



이범석 청주시장,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점검 및 발굴'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점검 및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20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 취업이 매우 어려운 때이다"라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발굴해 꼼꼼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예정된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에 대비해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화

재로 법당이 전소되는 일이 있었다"며 "우리지역 문화재도 화재가 나지 않도록 소방설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주기도 하고 걱정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기술을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자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동남지구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안길, 산남지구, 하북대 등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고정화/기자

경북도,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 체결!

구미'반도체특화단지'유치 총력... 기업·연구기관 참여의향서 제출

경북도는 20일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반도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경상북도 △구미시 △경북반도체산업초격차육성위원회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지자체와 교육 및 연구기관 14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했다.

SK실트론을 비롯한 국내 반도체 선도기업 10개사를 포함한 50개사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입주 및 연구개발·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이날 사업 참여 의향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업무협약은 △특화단지내 반도체 선도기업의 육성 △반도체기업 맞춤형 교육과정개발을 통한 인력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반도체기업의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 구미시, 산·학·연 협력을 통해 10년간 전문인력 2만 명 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전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와 구미시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반도체 수요 증가에 맞춰 첨단 반도체산업을 지역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는 전자와 반도체, 첨단소재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개의 기업과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를 구비하고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산업단지 부지, 풍부한 공업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할 통합신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출과 물류수송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SK실트론, 삼성SDI, KEC,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 359개사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구미가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내세울 방침이다.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 구축과 공동연구 개발 인프라 설치, 인력양성,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자리 5천명 고용 창출, 반도체 소재 수출 10% 증가, SIC(12인칭) 양산기술 및 GaN 웨이퍼(8인칭) 생산기술 확보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으로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이라며, "국가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우수물산업신기술실증화,경기도가지원합니다

경기도 물 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 지원을 위한 2023년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3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물 기업을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물 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도내 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36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수처리 관련 고효율·저에너지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정 과제를 제정하고 기업이 원하는 실증화 기술 수요 반영과 실증화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2023.2.10.)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 기업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증화 진행 비용과 장소 부지는 물론 측정분석 서비스와 전문가 기술 자문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 1년 이내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의 범위에서 수처리기술(공법) 및 수처리 관련 고효율·저에너지 기술·제품은 최대 1억 원,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분야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박정남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도내 우수한 물 산업 기술들이 실증화



등의 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굴·지원하여 물 산업 발전 및 탄소중립에 기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4호기 최초비행 성공

방위사업청은 '23년 2월 20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시제 4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11시 19분부터 34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이며, KF-21 복좌기는 주로 신규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방 동체1)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연료탱크 공간 등이 다소 변경되나, 나머지 부분은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시제 4호기의 이번 비행은 초기 비행 안정성 확인 목적의 최초 비행임을 고려하여 복좌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1명만 탑승하여 비행

했으며, 앞으로 시제 4호기는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하여 단좌형과의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확인, AESA2) 레이더 항공전자 시험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제 4호기 도장은 시제 3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의 상층 형상이 노란색이란 점에서 시제 3호기와 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시제 5.6호기도 비행시험을 착수하면 향후 총 6대의 시제기가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검증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제 3호기(단좌형) 시제 4호기(복좌형) 최광수/기자

부산시, 전략적 해외마케팅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나선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2023년 통상진흥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의 중심, 통상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마련된 통상진흥계획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연계, 해외마케팅 추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기업 지원,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8,067개 사의 기업에 48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

먼저, 시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했던 '수출입 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제한됐던 직접(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한 6.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660여 개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또, 업종별 주요 전략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해외 바이어와 부산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수출기업 신규판로개척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북아프리카·유럽 등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대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대응 수출입기업 적극 지원

시는 원자재 가격·물류비·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시는 경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기업 해외물류비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부산수출원스튜디오를 운영해 수출지원시책 종합안내 및

수출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다음으로, 시는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출 스타트업 육성사업,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사업 등도 추진해 기업 수출 역량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통상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및 무역실무 전문가 양성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통상 네트워크 구축

아울러, 시는 수출 판로 확대 및 경제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해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도 총력을 다한다. 초광역경제권 형성 협력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우호·경제협력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부산·상하이 자매도시 30주년 기념을 맞이해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및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도에 신설한 부산시 수출지원기관협의회도 활발히 추진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방안 및 수출 활력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업계에서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해남군, 3년 연속 사회적경제 협업체계구축사업 공모 선정

지속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증가 기대

해남군은 3년연속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규모는 연 1억원 안팎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37개 시군이 선정됐다.

해남군은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해남미남축제 등 관내 축제 행사시 사회적경제기업 부스존을

형성하여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할인 행사 진행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해남군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연, 10개 기업이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받았다. 또한 2022년에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인 20명이 체계적인 디자인 제작 교육 및 실습 환경을 제공받았다.



정광남/기자

광주 동구 사회적경제기업-대기업 상생 협업 첫 행보

(주)시점-SK브로드밴드(주) 협약...사회적 가치 실현

뜻 모아

광주 동구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17일 SK브로드밴드(주) 광주사옥 로비에서 SK브로드밴드(주)와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시점 간 상생 협약식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카페 운영 공간제공 및 공간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동구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협업 ▲프로젝트 진행 관련 종합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한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8월부터 SK브로드밴드(주)의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비에 입점해 카페 '다인노'를 운영 중이다. 동구는 향후 사회적경제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업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시점은 청년 예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1년 6월 설립된 기업이다. 청년 예술인들의 저작권을 활용해 인테리어 포스터 등 특색있는 굿즈 판매,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 청년 사회적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준 SK브로드밴드(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 SK브로드밴드(주), (주)시점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최 의원, 서울시 교육 및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지방자치·의회 부문에서 '지방자치 창의융합 의정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사회·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유희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의회 11대 교육위원으로 서울시 교육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학 기간 급여 수령을 위한 교원 품수 복지 및 기간제 교원의 불합리한 해고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시민과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 김미숙 회장 '여성농업인스타' 스타상 수상

보은군은 지난 20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여성농업인스타'에서 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 김미숙 회장이 생활기술분야 스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스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적이고 영농, 경영, 생활기술 3개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각 분야별 3명씩 선정해 스타상(장관상), 준스타상(청장상), 장려상(회장상)을 수여한다.

김미숙 회장은 친환경 대추 재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대추 양갱, 대추 식

혜 특허 등 가공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 스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미숙 회장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개선 회원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미숙 회장은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단대추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추양갱 특허와 대추고를 활용해 당도가 높지 않고 은은한 대추 향을 느낄 수 있는 대추 식혜도 2022년도에 특허를 획득했다.

고정화/기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장, '2023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장이 19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언론인연합회 의회 등이 주관했다.

장정복 의장은 제8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며 군정 질문 9건, 5분 발

언 5건을 실시하고 조례안 25건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건설, 복지, 문화, 여성,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정복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군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오/기자



대구시민의 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2월 21일 '2023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6명 시상

홍준표 대구시장은 2월 21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개최되는 '2023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4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된 6명을 시상한다.

대구시는 '제4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58일간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12월 22일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2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1977년 제정된 이래,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 선행·효행 실천 등 각 부문에서 공로가 뛰어나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정·시상해 왔으며, 이번 대구시민의 날 행사 시상으로 46회, 총 162명이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 박병욱 달인의 점담 대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6명의 공로자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를 수여한다.

박병욱 달인의 점담 대표는 요식업 브랜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으며, 장애인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후원과 한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장학 사업을 연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베풀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추광업 벽진BIO텍 대표는 분산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 성서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순 대구사랑봉사단 단장은 본상 사회봉사 부문에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신속한 현장 수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이득화 대구이용사 복귀지회 갑사는 본상 선행·효행 부문에서 어르신 가정과 결혼가정 등 대상으로 정기 이·미용봉사활동부터 지역 어르신을 위한 교통캠페인, 위문품 전달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여 각각 선정됐다.

또한, 특별상에는 주희주 대구보훈병원 간호실장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일선에서 감염병전담병동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센터 개소를 적



극 지원했으며,

시병진 수성구 보행지킴이 회장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과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경로당의 환경개선 등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솔선수범하여 각각 선정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대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쓰고 있는 시민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편제' 오정해 씨,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 송화 역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국악인이자 영화배우 오정해 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동참했다.

오정해 씨는 목포 출신으로 국악 김소희 선생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영화 '서편제'에 캐스팅돼 한국 최초 100만 관객을 넘기며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이후 국악인이자 배우,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국악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17년 강진 오감통 전남음악창작소 자문 겸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전남의 문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에 참여한 오정해 씨는 "나고 자란 내 고향이 항상 행복하고 더 많은 분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며 "고향을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그곳을 향해 있기에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 갯지,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체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과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정해명/기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산소카페 청송군

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향기와 색깔의 향연, 산소카페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군은 이름 그대로 피톤치드 향이 뽀뽀 솟아나는 푸른솔의 고장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봄은 새파란 청보리의 물결이 바람소리를 내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가을은 백일홍의 아름다운 자태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을 마주하는 곳!
힐링 명소, '산소카페 청송군'

※ 피톤치드: 식물에서 분비되는 향균, 살균성을 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총칭.
※ 부농: 사랑을 연상시키는 분홍색에서 유래된 SNS 용어.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의미한다.

안동 관광, 지상 3만 피트 하늘길에서 만난다

안동시, 항공기 기내 트레이테이블(Tray table) 랩핑 홍보'실시

안동시가 항공기를 활용한 관광 홍보에 나섰다.

이번 항공기 활용 홍보는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중 외국인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로 진행했다.

시는 티웨이 항공과 협력해 항공기 2대(국내선, 국제선)의 기내에서 안동 관광 홍보를 시작한다. 탑승객 좌석(171석 x 2대)마다 음료, 식사 취식을 위해 사용하는 트레이 테이블 양면에 안동의 관광 명소 사진을 랩핑했다.

테이블을 꺼거나 접어도 항상 하회마을, 월영교 등의 안동 명소 이미지가 보이도록 했다. 또한 탑승객들이 랩핑 디자인 내 QR코드를 통해, 안동의 관광 자원에 대해 영상으로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승무원들의 안동 관광 리플릿 직접 교부를 통해 탑승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티웨이 항공 국내선은 김포, 대구, 부산, 청주, 제주를 오가고, 국제선은 일본(나리타, 후쿠오카, 오사카, 삿포로), 태국(치앙마이, 방콕) 필리핀(세부) 베트남(다낭, 호치민), 미국(사이판, 괌)을 경유하게 된다.

이로써, 기본 30분에서 5시간 이상 머물게 되는 기내에서 안동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확실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두 비행기는 하루평균 5회에서 5.5회 편도 운항하고 90%를 상회하는 탑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 달이면 5~6만여 명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안동을 알아가게 된다.

안동은 관광거점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표 도시로서 오롯이 보존된 전통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천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가보고 싶고, 다시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 홍보를 시작했다."라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매력적인 안동관광을 즐기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당 등 모든 관광요소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일본 '거점도시 로드쇼' 참가, 경북관광 다양한 매력 홍보

국제관광시장 회복시기

맞춰 일본 관광업계

네트워크 재구축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일본 아오바운드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거점도시 로드쇼(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경북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일본 거점도시 로드쇼'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홍보 및 한국 관광복합업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했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총 16개 유관기관이 참가하여 일본 관광업계 대상 B2B상담회와 홍보설명회, 한일관광교류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경북도와 공사는 B2B상담회와 홍보설명회를 통해 일본의 신한류 열풍으로 MZ세대 개별관광객을 겨냥한 포항의 '갯마을 차차차',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촬영지와 사극 촬영지의 메가인 문경세계제트장 등 K-드라마



촬영지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경북의 대표 관광상품인 K-헤리티지(문화유산) 관광과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경주 벚꽃마라톤대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고령 대가야축제 등 경북의 대표 축제를 소개해 코로나19로 있고 있었던 경북만의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홍보했다.

한일관광교류의 밤 행사에서는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복합업 및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상호 의견을 교

환하고,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마케팅 전략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일본은 2022년 방한관광객 순위가 2위인만큼 외래관광객 유치에 놓칠 수 없는 국가다"라며 "이번 로드쇼를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된 현지 관광업계와 네트워크 재건으로 관광상품 판촉에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일본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교육여행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으로' 고창군, 수학여행단 유치 총력

전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1천만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수학여행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 초·중·고 1만2000여개 학교에 수학여행 홍보물과 심덕섭 고창군수의 유치 서한문을 발송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음식점, 숙박업소 정보, 관광지도, 체험프로그램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특별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수학여행 사전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학생들에게 관광기념품을 나눠준다.

고창 주요관광지를 형상화한 무드등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다. 요청하면 전담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여 여행할 수 있다.

고창군은 향후 수학여행과 단체 관광객 유치 관계자를 초청해 세계유산 관광지를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백재욱 관광산업과장은



"수학여행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

하는 수학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관광1번지 단양군, 관광특구 평가 2년 연속 '우수'

천만 관광도시 단양군이 명실상부 충북 관광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로 인정받았다.

15일 군은 충청북에서 매년 실시하는 '2022년 충북 관광특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관광 분야 외부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달 2일부터 이틀간 ▲관광특구 지정요건 적합여부 ▲관광특구진행 계획 추진실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공공성에 전문 관광마인드를 접목한 복합형 지방공사인 단양관광공사의 출범을 통해 지역 대표산업인 관광을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올해 군정 목표를 안전하고 품격있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의 완성



으로 정하고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수상 관광 활성화를 모토로 각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폐철도 관광자원화 등 2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민간자본 사업들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우리 단양은 숨겨져 있는 후기구석기 최고 유물이 출

토된 문화유적지이자 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2005년 12월 30일 단양읍과 매폍읍 2개읍 5개리 일원이 보은 속리산과 충주 수안보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최만식/기자

위대한 시인 · 새로운 안동

봉산개도 우수가교 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난관이 있어도 굳은 의지로 극복하겠습니다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